

'미꾸리'로 6차산업화 연다

남원시, 농축산부 공모사업 선정 10억원 확보 전문 양식농가 육성·추어탕 체험행사 등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가 남원 미꾸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청의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고 해양수산부 소관 공모사업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국가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남원의 특화사업인 미꾸리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이러한 국비 확보 노력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중인 무환수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 연구가 바탕이 되고 있다.

무환수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해 사육수를 환수하지 않으면서 미꾸리를 출하단계까지 키우는 기술로 남원 미꾸리 생산의 최대 난제였던 생존율 향상과 양식기간 단축문제를 해결할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난 6월 무환수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 1차 평가에서 성공적

인 결과를 확인하였고 현재 지속적인 보완 시험연구로 2018년에는 기술을 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산 미꾸리 대량생산과 이를 통한 남원추어탕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의 기초단계인 남원산 미꾸리 생산이 낮은 생존율과 3년간의 긴 양식기간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소득이 낮아 포기하는 농가들이 생겨나면서 생산량이 부족해 2차 산업인 가공산업과 3차산업 등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업전반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무환수 미꾸리 대량양식 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청의사업비를 투자해 2018년 까지 완성하고 2019년 기술의 효율성을 농가단위의 시험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완성된 기술을 양식을 원하는 농가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수하여 전문미꾸리 양식농가를 20개소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리적표시제, 지리적 증명표장, 추어탕 신메뉴개발 등 남원미꾸리와 추어탕 관련한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남원 미꾸리 및 추어탕 체험행사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미꾸리 생산연구 부터 가공, 체험관광까지 아울러 전국 어디에도 없는 남원만의 특화 사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기술센터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이용해 2021년경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환수 미꾸리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남원산 미꾸리를 판매 뿐만 아니라 관외지역까지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 남원산 미꾸리를 남원의 주력 1차 산업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전략 또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이환중 소장은 "추어탕은 남원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남원 추어탕 브랜드를 남원산 원료생산과 지역 가공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6차산업화를 도모해 남원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촌 효자손 역할 톡톡

영농작업 효율성 극대화 10월 말 5200여건 임대 종합평가서 전국 10위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0위에 선정된 가운데 주민들이 관계자로 부터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촌일손돕기에 톡톡히 한몫을 해내면서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면서 영농작업의 효율성은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0위에 선정돼 포상금으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유등면에 위치한 본소에서 멀리 떨어진 북흥, 쌍치, 구립면 주민들이 임대사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 구립면 사골에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 운영해 이용률을 대폭 높인 점과 여성농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구입 임대해 여성들이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

를 받았다.

또 소형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차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민에게도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민들이 쉽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진행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황숙주 군수는 "2017년 전국농기계

임대사업소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전국 탑10에 선정돼 기쁜 마음이다"면서 "앞으로 실제 농작업에서 필요한 농기구를 비치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50기종 588대의 농기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5,200여건의 임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농특산물, 서울서 '불티'

쌍치면 주민자치위원회 동대문구서 직거래장터 1300만원 판매 기록 '호응'

순창군 쌍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에서 최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순창군 쌍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농2동 로터리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0개 농가가 각각 부스를 운영하며 우수한 쌍치면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앞장섰다. 직거래장터에는 쌍치 특산물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등 과실류 액기스, 즙, 분말류, 제철 농산물인 고구마와 산비품, 쥐눈이콩 등 두류, 순창을 대표하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식품을 비롯해 총 60여 품목이 마련되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행사인 동시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자리인만큼 상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였으며, 상품의 소포장화, 적극적인 시식·시음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더욱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진영무 쌍치면장은 "쌍치면 우수 농특산물로 참여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농산물 홍보는 물론 도농교류 우호증진 계기가 되었다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직거래장터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으로 자매결연의 의미를 되살렸고, 지역주민 호응속에 성황리 마무리 된 직거래장터는 약 1,3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해, 쌍치 농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방증하였으며 향후 농산물 판매량 증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고교 의무급식 운동본부 시내 고교 무상급식 지원 촉구

전북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북 5개교 도시 고교의무급식 남원시 운동본부(회장 양은옥)는 6일 남원시청에서 2018년 시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건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 지역 7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남원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농촌 고등학교 2개교(경마축산고, 인월고)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 고등학교 7개교는 전북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고 농촌고교는 의무급식을 실현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시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교육청과 남원시가 협의해 빠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청소년 축제 성황리에 종료 일품공원 400여명 모여 '열기'



임실군은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660여개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축산농가 성분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임실군은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660여개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자는 퇴·액비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등의 비료시험연구기관에 허가대상 축사 및 재사용시설은 6개월, 신고대상 축사는 1년마다 성분 검사를 의뢰해 퇴·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성분검사 완료

후 액비 살포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작물 시비처방에 따라 적정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비료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성분검사를 이행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퇴·액비 생산업체의 성분검사 의무화를 통해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에서 생산된 비료의 품질 향상, 가축분뇨의 안정적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